

호남대 펜싱, 전국체전 남녀 단체전 '동반 메달'

광주 대표로 출전...남자 사브르 단체전 은·여자 동메달 실업 강팀들 높은 벽 잇따라 넘어서며 메달 획득 '쾌거'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인 호남대 남·녀 펜싱팀이 사전경기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호남대 남자펜싱팀은 최근 울산시에서 진행된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펜싱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윤성현·황현호(이상 4년), 박정호(2년)·주진현(1년)은 단체 8강전에서 경북(국군체육부대)을 45-30으로, 4강전에서 서울을 45-43으로 꺾었다. 이어 결승에서 경기선발에 43-45로 석패,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펜싱팀 김경미·이승주(이상 4년), 이승주·최민지(이상 3학년)은 8강전에서 전남(전남도청)에 45-43으로 승리, 4강에 올랐다.

4강전에서는 경기도(안산시청)에 30-45로 패해 동메달을 따냈다. 김병진 감독은 "실업팀의 높은 벽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면서 선수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에도 훈련장 확보와 지원을 해준 호남대에 감사드리며, 힘든 여정을 함께 극복하며 오늘의 좋은 성적을 올려준 남녀 선수들과 모호정 코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호남대학교 펜싱부는 2011년부터 광주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매년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체전 사전경기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호남대 남·녀 펜싱팀. <호남대 제공>



광주 챌린저 테니스 '훈신의 샷' 한국의 이덕희(세계 602위·세종시청)가 4일 광주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02 광주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본선 32강전에서 막시밀리안 뉴크리스트(세계 341위·오스트리아)와 경기를 하고 있다. 이덕희는 막시밀리안에게 1-2(6-4 0-6 3-6)으로 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광주시테니스연맹 제공>

'가을 여왕' 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

KLPGA 하이트 진로 6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신흥 강자'로 떠오른 김수지(26)가 3주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김수지는 6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 블루헤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차례로 제패한 김수지가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 3주 연속 우승이다. KLPGA투어에서 3주 연속 우승은 지금까지 김미현, 박세리, 그리고 서희경 등 딱 3명만 봤다. 게다가 서희경이 하이원 컵, KB스타투어 3차전, 빈하이오픈에서 차례로 정상에 오른 2008년 이후 14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다.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은 김수지가 작년에 우승했던 대회다. 3주 연속 우승에 대해 2연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셈이다. 우승하면 상금랭킹 1위는 덤이다. 가을에만 4승을 쓸어 담아 '가을 여왕'으로 불리는 김수지는 최근 워낙 샷에 몰이 올라 있기에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3주 연속 우승과 타이틀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수지는 역시 난코스를 즐기는 상금랭킹 박민지(24)와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연합뉴스



지난 2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수지.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몸살로 기권했던 박민지는 몸을 추슬러 이번 시즌 다섯 번째 우승과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린다. 박민지는 올해 치른 4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번에 2위, 3위, 4위를 한 번씩 했다. 그만큼 메이저대회 코스에 강하다. 작년 이 대회에서 김수지에 이어 준우승했던 박민지는 설욕전을 겸한다. /연합뉴스

스페인 테니스 전성시대

알카라스·나달 나란히 세계 랭킹 1·2위...권순우는 120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라파엘 나달(이상 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 1, 2위가 됐다. ATP 투어가 3일 발표된 이번 주 세계 랭킹을 보면 알카라스가 1위를 유지했고, 지난해 3위였던 나달이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로써 같은 스페인 국적의 두 명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AP통신은 "같은 나라 선수가 ATP 투어 단식 1, 2위를 독식한 최근 사례는 2000년 앤드리 애거시와 피트 샘프러스였다"고 보도했다. 두 미국 선수가 1, 2위에 오른 이후 22년 만에

같은 나라 선수가 1, 2위를 휩쓴 셈이다. 특히 미국 이외의 국가 선수가 1, 2위를 독차지한 것은 이번 알카라스와 나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2위였던 카스페르 루드(노르웨이)는 ATP 투어 유진투어권 코리아오픈 8강에서 탈락, 3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코리아오픈 우승자 니시오카 요시히토(일본)는 56위에서 41위로 경중 뛴었고, 준우승한 데니스 샤프발로프(캐나다)는 24위에서 22위가 됐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1위는 올해 4월부터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계속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알카라스 나달 한국 선수로는 남자 권순우(120위·당진시청), 여자 장수정(127위·대구시청)이 가장 높은 순위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탁구 4전 전승 조 1위로 16강행

세계탁구선수권 사우디에 3-0 승

한국 남자 탁구가 조별리그 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 16강에 진출했다. 주세혁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은 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2 국제탁구연맹(ITTF) 단체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 4조 최종 4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3-0으로 완승했다. 앞서 캐나다(3-0승), 체코(3-0승), 이집트(3-1승)를 차례로 꺾고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잡으며 4전 4승, 조 1위로 기분 좋게 조별리그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각 조 1, 2위 팀은 16강에 곧바로 진출하고, 3위 팀끼리 성적을 비교해 남자부는 상위 2팀, 여자부는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추가로 합류한다. 이어지는 이집트(2승 1패)와 체코(2승 1패)의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4조 2위, 지는 팀이 3위에 오른다. 16강 대진은 이날 조별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추첨으로 결정한다. 단식 5전 3선승제로 승부를 가리는 가운데, 한국은 조승민(삼성생명)이 1단식에서 압도아지즈 술라이비와 폴세트 점전 끝에 3-2(11-6 9-11 11-9 9-11 11-4)로 신승, 불안하게 경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대성(삼성생명)과 황민하(미래에셋증권)가 여유 있게 상대 선수들을 돌려세우며 승리를 끌어냈다. 조대성은 알리 알카드라위에게 3-0(11-8 11-4 11-1)으로, 황민하는 아잠 알림에게 3-1(8-11 11-3 11-8 11-3)로 이겼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정직한 후보2
2관	컴백홀, 정직한 후보2
3관	정직한 후보2
4관	인생은 아름다워
5관	인생은 아름다워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9관	컴백홀
7관 씨네캐슬	공조2: 인터내셔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편 버전'
8관 씨네캐슬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막걸학교,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육사오(6/4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613-8245